

고교교과서도 '5·18' 빠지나

내달부터 집필기준 마련...현 기조 유지 '역주행 역사교육' 되풀이 우려

정부가 중학교 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삭제키로 한 데 이어 고교 교과서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확산할 조짐이다.

〈관련기사 3면〉

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고교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마련을 위해 현재 15명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역사학회 관계자와 현장 교사, 현범학자 등 5~6명을 추가로 위촉해 20여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광주 지역에서는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도 중학교 역사 교과서 논란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적용할 '2009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이승만 독재와 5·18민주화 운동 등을 삭제하는 등 편향된 역사관식을 드러냈고, 이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날 서울 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강당에서 열린 '교과서(국어·도덕·역사·경제) 집필기준 설명회'에서 이런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김관복 교과부 학교지원국장장은 5·18 민중항쟁 서술과 관련, “대강화(大綱化) 원칙”에 따라 교과서에 실릴 주요 역사적 사건들의 선정과 서술 수준은 교과서 집필자들의 몫”이라

며 “다만, 5·18 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 등 주요 역사적 사건들은 교과서에 서술돼야 한다. 누락 땀 검정 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그러나 5·18 민중항쟁 항목이 교과서를 기술하는 명확한 지침인 교과부의 집필기준에 빠져 있어 5·18 관련 서술이 교과서에 실릴 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실제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광주시 등 관련 기관에서 요구한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개정 요구안을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면서 “이는 참고 자료일 뿐, 교과부의 집필기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고령에 광주역사교사 모

임회장은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뉴라이트 세력이 엄존하고 있고, 역사를 중립적으로 보지 않는 정부가 집필기준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고교 역사교과서에도 반역사적인 행태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폐기함과 동시에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때 또 다시 5·18 민주화운동 등이 삭제되지 않도록 역사학회와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英기업 F1 경주장 인수 타진

대회 개최권도 요구...박준영 지사 만나 지분 참여 등 논의

모터레이싱팀을 보유한 영국계 자동차 관련 기업인 M그룹이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장 및 F1 대회 개최권 인수 타진을 위해 박준영 전남지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에서 영국에 본사를 둔 M 그룹 관계자들과 만나 F1 경주장 운영에 필요한 지분 참여 등의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남은 M그룹이 수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보내 박지사 면담을 요청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M그룹은 이 자리에 최고 경영자(CEO)인 G회장이 참석, F1 경주장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사는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와이크시티언택 서울총회에 참석한 뒤 M그룹 관계자들과 1시간 넘게 의견을 교환했다.

M그룹측은 F1 대회 중주국인 영국에 본사를 둔데다, 모터레이싱팀을 운영하고 있고 오랜 기간 슈퍼카 판매 및 자동차서비스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내세워 연중 500개의 이벤트 행사를 개최, 경주장 수익구조를 창출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들은 현재 전남도가 소유하

고 있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권에도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최대 지분을 갖고 대회 운영기업으로 나설 의향을 내비쳤다는 것으로, 전남도가 부담하고 있는 수백억원의 개최권료와 중계권료를 떠안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예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남도가 내년 대회를 위해 내야 할 대회 개최비용은 560억원에 이른다고. 내년 1·3월 지급하는 TV 중계권료를 더하면 전남도는 모두 738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전남도측은 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F1 대회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생겨났다는 데 의미를 두면서

도, M그룹의 공신력과 자금력 등에 대해 분석에 들어갔다. 특히 첫 대회를 민간 기업인 KAVO가 맡았다가 부실하게 처리된 점 등을 들어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위기다. 충분한 자금을 투자해 대회와 경주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검증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한편, 박준영 전남지사는 16일 출국, 영국 런던에서 버니 에클레스턴 포뮬러원매니지먼트(FOM) 회장과 만나 F1한국대회 개최권료를 낮추기 위한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탐사보도 '광주·전남 대해부'

일경언론상 대상 수상

광주일보 기획탐사 보도 '광주·전남 대해부'가 14일 (재)일경언론문화재단 주관 '제15회 일경언론상' 대상(상금 1000만원)에 선정됐다.

'광주·전남 대해부'는 지방자치 20년, 민선 5기 출범을 앞두고 기획한 2010년 광주일보의 연중시리즈다. 광주일보 윤현석·윤영기·김지을 기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일자리·교육·주거·문화·민주·산업·해양·관광 등 9개 분야의 실태와 문제점을 현장 취재를 통해 집중 점검하고, 전문가 조언을 거쳐 대안을 제시했다.

장려상(상금 300만원)에는 울산문화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대화강, 지난 10년의 기록'(육민석 차장 외)과 제주문화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불로장생 건강과 아름다움의 약속 5부작'(송창우 부국장) 등이, 특별상(상금 200만원)에는 매일신문사 '대구 동구, 북구 K2 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 이자 수백억원 변호사 독식'이 선정됐다.

일경언론문화재단 관계자는 “신문과 방송 부문에 20여개 작품이 제출돼 치열한 경합을 펼쳤다”며 “광주일보의 '광주·전남 대해부'는 현장성, 전문성, 미래 대안 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14일 낮 12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윤현석 기자



윤영기 기자



김지을 기자

‘교과서 5·18 삭제’ 분노 확산

광주 연석회의 대표단 당정 항의방문 광주시 온라인 대국민서명운동 돌입

정부가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삭제키로 한 것에 대해 광주지역 기관·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정부에 항의 방문을 하고, 광주시가 온라인 규탄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를 비롯한 광주지역 80여 개 기관·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새 역사교과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 철회’

를 위한 광주지역 범시민단체 연석회의’ 대표들은 14일 김창식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잇달아 방문해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청와대에 항의문건을 전달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영진 국회의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준태 5·18 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김 총리와 이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즉각 폐기와 5·18 민주화 운동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역사왜곡 집필기준에 대한 책임 관련 교과부 장관 사퇴와 대통령 사과도 요구했다.

광주시는 또 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폐기와 올바른 역사인식 촉구를 위한 ‘온라인 국민서명운동 사이트’

(www.gjmayor.net/518.jsp)를 개설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명에 참여하려면 광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서명 배너에 들어가 인적사항과 서명 글을 입력하고 ‘서명합니다’를 클릭하면 된다.

온라인 서명에는 자신의 의견을 남길 수 있으며, 개인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한 사이트 홍보도 가능하다. /최권필기자 cki@kwangju.co.kr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광주에서 15~20분대의 우수한 접근성과
밀리지 않는 정확한 티오프시간으로 고객님의 시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해피니스CC 회원모집

- 모집기간 : 2011년 10월 10일 ~ 12월 31일
- 클럽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번지
- 코스규모 :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VIP 정회원

- ▶ 입회금액 : 3억 3,000만원
-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동반3인 상시 그린피 50%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1일1회 18홀 기준)
 -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일 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 ※ 계약시 :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 모든 특전

해피정회원

- ▶ 입회금액 : 1억원
- ▶ 회원특전
 - 공통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선택 : C형, D형 중 선택(1)
 - C형) 무기명카드 1매 : 그린피 50%할인(연 60회 사용, 1일 1회)
 -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할인혜택 없음, 지정회원 없음
 - D형) 지정회원 1인 준회원대우(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할인혜택 없음
 - ※ 계약시 :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 모든 특전

유연정회원

- ▶ 입회금액 : 1억 5,000만원
-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할인혜택 없음, 지정회원 없음
 - 무기명카드 2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연 70회 사용, 1일 1회 사용)
 - ※ 계약시 :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 모든 특전

중증 / 평일 정회원

- ▶ 입회금액 : 3,300만원(선착순 30명에 한하여 300만원 할인)
- ▶ 회원특전 : 평일회원 1인 그린피 70% 할인

※ VIP회원 및 해피·유연정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선(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 납입후 1개월내 잔금완납

가입문의 Tel 061)330-5000 / Fax 061)300-5009

hAPPINESS 해피니스CC www.happinesscc.com